

팽배해지는 육계업 위기 일치단결로 극복해야……

□ 정리 / 김용화 홍보팀장

「본고는 닭고기 수입의 폭발적인 증가와 국내 생산량이 서서히 증가하는 시점에서 육계 출하가격의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육계업계의 활성화방안을 마련키 위해 본회 최길영 육계분과 위원장겸 부회장을 만나 나는 대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편집자주 -

▲ 닭고기 수입자유화 이후 수입량의 급증으로 육계업계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육계분과위원장을 맡아 어려움이 크실 것 같은데 육계분과위원회 운영 현황은?

△ 최길영 : 수입개방시 우려했던 사태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급격한 구조조정(생산량 감소)으로 육계가 격이 높게 유지가 되었고, 병아리 공급부족으로 부득이 계약사육을 할 수밖에 없게 되자 육계인들은 장차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비한다는 생각보다 병아리 입식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육계분과위원회 참여에 다소 소극적이지 않나 느껴집니다.

▲ 질병이 많아 출하가는 높아도 자칫 잘못하면 적자경영이 된다고 하는데?

△ 최길영 : 농가마다 상황은 달라도 질병발생은 높은게 사실입니다. 병아리를 입추하고 5일 이내에 폐사하는 비율도 매우 높고, 출하율도 90%를 넘기면 아주 우수한 성적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반해 수입육은 도계품 kg당 도착가격이 80센트(960원)인 통다리의 경우 국내산에 비해 2.5배가 싸서 시장잡식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앞서 말씀드린대로 계약사육 비중이 높아서 육계분과위원회 운영에 관심이 낮아진다면 육계인들이 불이익을 받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옳은지 궁금한데?

△ 최길영 : 육계인들이 계약사육을 하건 일반사육을 하건 인식을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회란 가입을 해도 조합과는 달라서 당장 금전적으로 수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넓은 의미에서 공동으로 대처를 하여 부가세 영세율과 같이 혜택을 받거나 조직이 있으니 상대적으로 육계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계약사육 농가들이 계약사육과 관련하여 불만이 많을 경우 육계농가가 계열주체와 상대하기 어려울 때가 많은데 권익을 보장받기 위해 뭉쳐서 불합리한 것은 고치도록 요구를 한다는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협회가입은 중요하면서 필수적이라 생각해야 합니다.

▲ 육계분과위원회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 최길영 : 중책을 맡은 이상 최선을 다하여 육계인들이 관심을 갖도록 체계적이고, 정확·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기



△ 최길영 위원장

위해 새로 개편된 본회 기구를 활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언제 불이익을 받을지 모르는 육계인을 설득하여 본회 육계회원을 늘려서 본회 조직활성화를 통해서 수입량은 늘고, 생산비는 높지만 그 속에서 우리나라 육계업이 생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의 중심이 되도록 육계분과위원회를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 육계산물 가격이 낮아져 어려움을 겪는 육계인을 위하여 한 말씀 하신다면?

△ 최길영 : 육계업의 어려움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가격상승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계약사육건, 병아리, 사료, 약품, 기자재 등 생산자재의 비효율성으로 육계인은 항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육계업 구조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점을 고려하여 육계인들은 다시 힘을 모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확립하여 본회 육계분과 위원회를 보다 활성화 시키는데 많은 참여와 배려를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 어려운 육계업계를 안정시키기 위해 육계분과위원회가 활성화 되기를

바라며, 주요 사업이 있다면?

△ 최길영 : 생업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회원 모두가 빠른 정보수집을 위해 농가마다 Fax 설치를 하도록 운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적극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양계